

외국인 유학생, 영암 구림마을 한옥에서 한복입고 찰칵

영암군, '호남 명촌 구림마을 문화체험 글로벌 팸투어'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1~12일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 40명을 초청해 '호남 명촌 구림마을 문화체험 글로벌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영암 대표 한옥마을이자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호남명촌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하도록 마련됐다.

팸투어 참가 외국인 유학생들은 ▲월출소반 한식 ▲도기박물관 도기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한복 ▲목재문화 등을 체험하고, 한옥 펜션에 숙박했다.

영암 특산물물을 재료로 차려낸 월출소반 한식은, 맛과 정성, 철학이 담겨 있다

는 평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흙과 물로 자신들의 도기를 빚어보고,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 행사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특히, 한옥 처마 아래서 갖과 도포를 입은 유학생들은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대문헌터스'의 캐릭터 사자보이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글로벌 팸투어를 구림마을의 한옥과 한국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유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구림 한옥마



영암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호남 명촌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외국인, 청년,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특화 팸투어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구림마을의 전통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 대덕면, 이동복지관 '움직이는 복지 세상' 성료

복지 접근 어려운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담양군 대덕면은 지난 14일 대덕 행복나눔터 일대에서 운영된 이동복지관 '움직이는 복지 세상'이 지역 주민 200여 명의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복지관은 해림종합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대덕면사무소와 대덕면주민자치회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 접근성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했다.

일일카페 운영, 물리치료 및 대체의학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이불 세탁지원, 갈갈이 봉사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이뤄져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무드등·비즈팔찌 만들기, 네일아트 등 체험과 함께

장에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돼 지역사회 내 이해와 소통을 넓혔다.

이병용 해림종합복지관장은 "이동복지관은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해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수자 대덕면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움직이는 복지 세상'은 주민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생활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부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 대표 화훼농가 이현씨, '전남농업인대상' 수상 쾌거

스마트온실 기반 첨단농업 실천으로, 강진 화훼산업 경쟁력 입증

지난 11일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전남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강진군 대표 화훼농가인 이현(강진군 칠량면)씨가 전남농업인대상(원예특용 분야)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주최하고 (사)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 주요 내빈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자인 이현씨는 강진군 장미 재배 '땅심화훼 영농조합법인' 총무를 역임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화훼 유통

경로를 다양화시켜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강진에서 유일하게 법인 자격으로 선정되어, 이를 통해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을 접목시켜, 온실 내 외부 및 작물 근권부 환경까지 감안한 최적화된 생육관리와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고품질 생산체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강진 청년 후계농들에게 본인의 축적된 재배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5명의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 강진군 화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을 보태며, 지역농업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영문 농정과장은 "이현 농가는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ICT·스마트팜 기술을 발 빠르게 적용해 강진 화훼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농업인"이라며 "강진군에서도 스마트팜 확충, 맞춤형 환경 제어 시스템 보급, 에너지 절감형 시설 현대화 등 원예 특작 분야의 스마트농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장학금 500만원 기탁

장학기금 연 2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증액

보성군은 지난 17일 보성군장학재단(이사장 문찬오)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전달식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지사장 이동호)가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는 2021년부터 매년 200만 원씩 4년간 총 800만 원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장학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탁액을 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기탁된 장학기금은 교육격차 해소,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전문 기술·특기 적성 개발, 스마트형 인재 양성 사업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보성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의 뜻깊은 기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금은 보성군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및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지사장 이동호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



역인재 양성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앞으로도 보성군의 교육 발전에 힘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명문고 육성, 전문계고 특기 적성 지원, 미래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보성의 희망'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온정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바람이 퍼지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19일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지역 내 경로당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100만 원과 커피라면 62박스, 백미(4kg) 31포대를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출범할 예정이며, 이번 기부는 전환을 앞둔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 있는 나눔 활동으로 더욱 뜻깊다.

또한, (사)한국쌀전업농 박재은 함평군 연합회장도 백미 10kg 50포대를 기부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전달하고, 주민 중심의 나눔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집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는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